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리라

(잠언 16:3)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발행인: 신성종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이종국

평소 주일에 할 수 없었던 교육적 내용으로

'95 겨울 계절학교, 다음주 초등, 중등부

1월 11일 고등부 시작으로, 금년 처음으로 장년1부도

매년 겨울방학을 중심으로 열리는 각 교회학교 겨울계절학교가 지난 1월 11일~13일에 충현기도원에서 수련회를 가진 고등부를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지난 주간에는 대학부 수련회가 2월 6일~9일까지, 또 새가정부 수련회가 2월 11일(토)로 이어지면서 겨울수련회가 무르익어 가고 있다.

매주일 비좁은 공간과 제한된 시간에 쫓기며 제대로 공부할 수 없었던 내용과 프로그램들을 보다 많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실시할 수 있는 계절학교는 각 부 교회학교에서 년중 행사중 가장 큰 일로 꼽히고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짜서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주일에 실시하지 못했던 성경공부를 깊이 있게 하기도 하고, 야외에서 힘차게 운동도 하고 함께 모여 공동체 놀이도 하며 서로를 알고 익히기도 하고, 선생님들과 못나눈 이야기를 일대일로 사랑을 통해 하기도 하는 겨울 계절학교는 각 교회학교의 중요한 일이 되고 있다.

각 교회학교에서는 이를 위해 2개월 전부터 준비위원을 선정하여 프로그램과 진행 등에 세심한 준비를 하여 보다 효과적인 겨울 계절학교가 되도록 애쓰고 있다.

특히 금년에는 새로 신설된 유아부와 장년1부가 처음으로 계절학교를 열어

방학과 상관없이 1년을 시작하면서 화합과 단합, 새로운 각오와 헌신을 다짐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

또 금년에는 중등부와 초등부서가 겨울방학보다는 학년말 방학기간 동안에 실시, 2월 20~25일 사이에 계획되어 있다.

막대한 예산과 많은 인력, 시간 등을 들여서 하는 겨울 계절학교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성도들의 정성어린 기도와 사랑의 관심이 요구된다.

각 부 교회학교의 겨울 계절학교의 개

양육위원 특별 교육 실시

2월 19~3월 12일 까지

새가족위원회에서는 양육위원의 질적 강화와 효과적인 양육법을 위해 양육위원들과 교구양육위원들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 일시: 1995년 2월 19일 ~ 3월 12일(4주) 매주일 오후 12:30~14:00
- 장소: 베다니홀
- 대상: 양육위원 전원(행정부, 양육부, 교구양육부)
- 첫째주: 새신자의 상태와 심리이해
- 둘째주: 양육의 원리와 행정
- 셋째주: 일대일 양육법
- 넷째주: 소그룹 양육법

교회학교	주 제	장 소	일 시	강 사
영아부	기초를 튼튼하게	아멘홀	2.22~23	정연희
유아부	감사하는 어린이가 되세요	교205,202	2.22~23	계선화
유치부	예수님과 함께	교205,202	2.20~22	김정자
초등1부	예수님을 바라보자	교307	2.22~24	황정순
초등2부	예수님을 만난 어린이	교314	2.22~24	송향자
초등3부	예수님이 좋아요	교407	2.22~24	오인숙
초등4부	꿈을 갖자	교414	2.22~24	윤인숙
초등5부	공동체를 이루는 생활	교514	2.22~24	김필수
초등6부	사람의 본분을 다하자	교507	2.22~24	한용관
중등1부	규모있는 자가 되라	충현기도원	2.20~22	김희수
중등2부	거듭나야 한다	충현기도원	2.21~23	김광국
중등3부	지혜를 주옵소서	충현기도원	2.23~25	이홍성
고등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충현기도원	1.11~13	김창수
대학부	성령비전 2000	충현기도원	2.6~9	장봉생
청년1부	말씀·기도·찬양	충현기도원	2.28~3.2	정광욱
청년2부	사람이 무엇이란대	갈릴리홀	2.25~26	김정우
장년1부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교414호	2.18~19	이한수
새가정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새가정부실	2.11	박정규
사랑부	꿈꾸는 어린이	교107	3.1	임성환
예배다부(학)	믿음의 사람이 되자	충현기도원	2.20~22	이준우
영어주교	"Go to the World"	봉사관-가나홀	3.1	로봉린

금주의 교회행사

1. 청지기훈련 제2차 주간

청년, 대학생, 전도회,
차량관리부원, 직원

지난 1월 22일(수) 청지기훈련 전 제주간으로 모인 후 제2차 주간으로 2월 15일(수)과 16일(목)에 모입니다. 제2차 주간으로 모이는 금주에는 청년, 대학생, 전도회, 차량관리부원, 직원의 훈련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집회시작 전에 저녁식사를 제공합니다.

2. 직분자 24시간 연속기도회

2월 13일(월) 오전9시부터
2교구가 계속

지난 2월 6일 직분자 24시간 연속기도회를 시작, 계속되고 있는 직분자 24시간 연속기도회가 금주에는 13일 오전 9시까지 1교구가 끝내고, 2월 13일(월) 오전 9시부터 2교구가 시작한다.

3. 장년1부 겨울수련회

교회학교 장년1부(부장 손경수 장로)의 겨울수련회가 2월 18일(토), 19일(주) 이틀간 교육관 414호에서 모인다. 장년1부는 처음으로 갖는 겨울수련회이다.

- 주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 강사: 이한수 목사(장년1부 지도)



직분자 24시간 연속기도회

제2차 2월 6일(월) 오전 9시에 1-1교구부터 시작된 직분자 24시간 연속기도회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교회의 전 직분자(교역자·장로·집사·권사·서리집사 및 원하는 성도들이) 교구별로 이어 실시하고 있는 연속기도회는 이 일을 통해 한 제목으로 전 직분자가 기도하며 현재 교회의 필요와 이를 위한 각자의 태도를 분명히 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 기도회는 4월 30일까지 계속되는데 행여 계획된 날짜에 못하게 되는 사람은 교구 교역자에게 연락하여 24시간 연속되는 기도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1. 기도실에서는 인쇄된 기도제목을 보고 기도합니다.
2. 기도하면서 뒤에는 연속기도일지에 이름을 쓰고 사인합니다.



총헌강단

● 요한계시록 강해 23 ●

여섯째 나팔 재앙

(계 9:13-21)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보면 “화 화 화가 있으리로다”라고 하며 앞으로 세 가지 큰 화가 있을 것을 말씀했는데 이 시간에는 두 번째 화, 즉 여섯번째 나팔재앙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브라데강

여섯째 나팔을 불 때에 유브라데강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13,14절) 유브라데강은 메소포타미아 서쪽 지역을 가로 지르는 강으로 길이가 180마일쯤 됩니다. 이것이 흐르다가 티그리스강과 만나서 페르시아만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 강은 로마제국의 경계를 이루는 강이며, 동양과 서양의 경계를 나누는 강이기도 합니다.

에덴동산에서 기혼강, 비손강, 헛데겔강, 유브라데강 등 네 강이 발원했는데 유브라데강은 옛날부터 반역이 많은 지역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반역, 즉 유브라데강 근처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그들의 자녀인 가인이 그 형제 아벨을 죽인 첫번째 살인도 이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또 가장 큰 반역 행위라고 할 수 있는 바벨탑을 쌓는 일도 이 강 주변에서 일어났습니다.

2.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줌

그런데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음성이 나타납니다. 이 음성은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13절). 이 금단은 성도들의 기도가 보관되는 곳으로 여기에서부터 명령이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서 고통받는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여 하나님께 ‘신원하여주지 않기를 언제까지 하 시렵니까’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이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천사를 놓아준 것이 순교자들의 기도의 결과요 응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박한 네 천사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결박되어졌다는 말과 이들이 유브라데에 있었다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유브라데는 반역의 중심지이고 반역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결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선한 천사 같으면 결박되어져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결박되어진 것으로 보아서 선한 천

사들이 아니라 악한 천사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계시록 7장 1절에 나오는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놓은” 그 천사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떤 사람은 네 천사란 악한 네 천사에 의해서 지배되는 나라들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이 미국, 소련, 중국, 유럽공동체를 의미하지 않느냐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세계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세력이 강대국임에는 틀림 없다는 것입니다.

3. 장차 일어날 전쟁

그러면 큰 전쟁은 언제 일어납니까?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삼분의 일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15절) 년, 월, 일, 시 앞에 ‘그’라는 정관사를 붙여 하나님께서는 그 분의 섭리 가운데 큰 전쟁이 일어날 년 월 일 심지어는 시간까지 정하셨음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일어나면 삼분의 일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4, 20, 21절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죽게 만드는데 삼분의 일이나 죽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에 동원되는 군대는 얼마나 될까요? “마병대의 수는 이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16절) 이만만이란 이만을 만갑절한 이억입니다. 이는 단순히 문자적인 의미라기보다는 큰 무리를 뜻하는 것으로 장차 무시무시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사용될 무기는 어떤 것 일까요?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홍감이 있고”(17절) 홍감이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이라고 했는데 이는 비행기나 탱크, 잠수함 등 과학무기들을 뜻하기도 하지만 영적인 중요한 의미도 있습니다. 이 무기의 힘들은 꼬리와 입에 있고(19절),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고 했습니다(17절). 구대 예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불이란 거짓과 악을 소멸하는 심판의 불이며, 연기란 시계를 흐리게 하는 거짓이나 무지를 상징하고, 유황이란 탐욕이나 이기심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마병대들의 무기는 입과 꼬리에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기의 힘이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비행기나 탱크의 입에서 내뿜는 살상무기를 뜻하고, 꼬리는 선전을 뜻합니다. 이는 앞으로의

전쟁이란 하나의 심판입니다.

심판을 일으키는 데에는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회개요 하나는 의로운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하고, 죄에서 돌이켜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하려는 데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무서운 것은 입으로 내뿜는 살상 무기들도 무섭지만 꼬리로 내뿜는 선전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하고 생명에 위협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전쟁이란 하나의 심판입니다. 심판을 일으키는 데에는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회개요 하나는 의로운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하고, 죄에서 돌이켜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하려는 데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4. 전쟁의 결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20절) 이 말씀에 의하면 큰 전쟁에서 살아 남은 사람들이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며 오히려 더 악해지며 우상에게 절을 한다고 합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21절) 여기에는 말세인 현대에 일어날 네 가지 죄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십계명 중 살인은 여섯번째 계명에 어긋나는 것이고, 음행은 일곱번째 계명에 어긋나는 것이며, 도적질은 여덟번째 계명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술을 합친 죄악이 현대에 일어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첫째, 살인입니다. 살인이 많이 일어나겠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복술입니다. 복술은 헬라어로 파머시(pharmacy), 즉 약국이라는 말로 약을 섞는다, 조제한다는 뜻입니다. 복술가들이 조제할 때에 환각작용이 일어나도록 조제를 합니다. 그래서 복술이라는 말은 아편이나 대마초나 본드 등의 마약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약을 영어로 drug(약)이라고 합니다. 즉 약은 잘 사용하면 좋은 것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마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머리를 이용해서 인간의 쾌락을 쫓는 약을 조제하여 여러 가지 죄악을 범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에 일어날 일 중의 하나입니다. 셋째는 음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여기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성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적질입니다. 작년부터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된 것이 무엇입니까? 세무 관련 공무원들이 국민들이 낸 세금을 도적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모든 것이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진 일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욱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5. 본문이 주는 교훈

세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견디기 힘든 핍박과 재난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올 터이니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평안의 날이 그렇게 길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재난이 점점 다가오고 있으니 준비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믿음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제출할 보고서를 평안의 날에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는 종말이 가까워지면 과학이 발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기가 편안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과학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악한 자들의 범죄를 부추기고 우상숭배가 성행하게 되도록 만드는 일을 합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만능주의를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불신자들 혹은 마음이 악한 자들을 회개시켜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정하신 그대에 전쟁이 일어나면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 텐데 그 환난과 핍박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과학만능주의를 경계하고 불신자나 마음이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장애인 선교를 생각하며

에바다부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이준우

<강도사, 에바다부 지도>

농 아인들은 단지 들을 수 없다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힘들고 고달픈 장애를 경험하게 된다. 남들이 재미있게 보는 TV도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른채 움직이는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고, 그 흔한 전화도 사용을 못하며 시장에 가도 대화가 힘들어 마음껏 물건을 살 수가 없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고 싶어도 의사소통의 부담 때문에 그냥 끄고 앉는 경우가 많고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사랑하는 아들, 딸(정상인)과 말로 대화하지 못하고 흑이라도 아버지, 어머니가 농아인이라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하며 살아가야 하는 등 그들은 농아인이라는 이유로 무수히 많은 소리없는 어려움을 경험해야 한다.

한국에는 대략 30~35만 정도의 청각장애가 있는 농아인들이 있다. 그들의 대부분은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더욱이 복음을 듣는 일에 치명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다. 그래서 농아인들을 위한 개별화된 선교와 의사소통 및 복지 서비스가 절실하다.

에바다(농아)부에서는 나름대로 이와 같은 농아인의 '의사소통의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여러가지 일을 해오고 있다. 농아인들만의 예배나 집회시에는 수화가 주된 의사소통법으로 채택되고 있으나,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O.H.P'와 'V.T.R' 그리고 시청각 기재를 반드시 사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본당에서 드리는 모든 공예배시에는 수화통역뿐만 아니라 자막 통역까지 나가고 있다. 수화통역하는 TV화면 밑에 자막으로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수화를 모른다 할지라도 글만



▲ 수화교실에서 강의 중인 이준우 강도사

알면 목사님의 설교 말씀과 찬송, 기도 등 모든 예배와 집회에 소외됨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농아인들과 장애인들을 단지 불쌍하고 도와주어야 할 존재로만 인식해 왔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맛볼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초연교회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은 교회이다. 장애인들을 선교하고 교육하며 만나서 교제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장(場)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다. 바로 에바다부(청각장애인)와 사랑부(정신지체인)의 존재가 축복의 근거이다. 어떤 유명한 신학자는 말하기를 "현대 교회는 더 이상 기적도 능력도 상실했다"고 했다. 그러나 그 말은 틀렸다. 한글도 수화도 모르던 농아인이

성령의 은혜로 믿음을 갖고 글도 깨우쳐 성경을 보며 수화로 말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역사가 에바다부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닌가?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정신지체아들이 찬송을 좋아하고 예수님께 기도드리는 역사가 사랑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한 영혼의 농아인, 정신지체인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일이 바로 기적의 역사가 아닌가?

요즘 에바다부에서는 그동안 눈물로 뿌린 씨앗의 열매를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얻고 있다. 농아학교를 졸업하고 열심히 빵만드는 기술을 배워 훌륭한 제빵 기술자가 된 이태훈 형제, 올해 농아인으로서 어려운 경쟁을 뚫고 대구대학교 조경학과와 사회학과에 나란히 합격한 이호순, 허진혁 형제, 농아인으로서 최초로 정규대학을 졸업하고 충신대 신

학대학원에 합격한 박인기 집사님, 현재 서울신학교 신학과 3학년에 재학중인 유성렬 집사님, 정영미 자매, 칼빈신학교 진학을 준비중인 고덕인 형제, 그리고 자기가 속한 일터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인정받고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우리 충현교회 에바다부에 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성숙한 전정인(정상인) 교사들과 수화통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에바다부는 기도하고 있다. 한국의 농아인 선교뿐만 아니라 북한과 전 세계의 농아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다. 참 감사한 일은 말과 수화, 문화가 달라도 농아인은 농아인끼리 통한다는 것이다. 농아인의 특징적인 모습이 농아인이라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비슷하다는 것이다. 마치 정신지체인 중 다운중후군 친구들의 외모가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비슷한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농아인 지도자를 키워서 내보낸다면 그야말로 귀한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다. 회교권에 가서도 수화로 전도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에게 발가될 염려가 비교적 적으니 효과적으로 선교할 수 있고, 농아인이 선교되어 재활되어 힘있게 살면 그 농아인의 가족에게도 선교할 기회가 생길 것이다.

북한 선교도 마찬가지다. 돈으로 북한의 문을 열 수 있을까? 수십년간 쌓인 감정의 앙금들이 돈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것이다. 사상은쟁으로 가능할까? 아니다. 방법은 사랑하는 것이다. 기독교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해야 한다. 사랑하는 일 중에 장애인들과 농아인들을 가르치고 선교하는 일만큼 북한 사람들에게 강하게 와 닿게 하는 일이 또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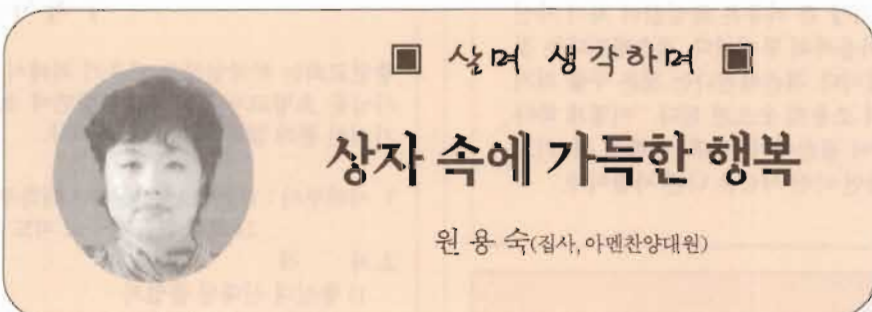
충현교회에서 경험하는 기적의 역사들을 북한에서도 체험할 수 있다면 북한 선교의 새로운 장이 개척될 수 있지 않을까?

농아인 선교 사역은 변화를 만드는 사역이며, 교회는 사랑으로 기적을 제조하는 곳이다. 충현교회의 에바다부와 사랑부가 더욱더 풍성한 기적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더욱 큰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나에게는 소중한 상자가 두 개 있다. 그 중 하나는 아주 오래된 것으로 나의 어머니가 남겨주신 것이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의 일이다. 어머니의 집을 정리하던 나는 다락 한쪽 구석에 보양계 면지를 쓰고 있는 허름한 와이셔츠를 하나 발견했다. 워낙 오래되고 낡은 상자라서 그냥 버리려다가 무엇인가 모으기를 좋아하셨던 어머니의 성품에 이젠 또 뭘까하는 호기심으로 뚜껑을 열어 보았다.

이런저런 나는 만들기를 참 좋아했다. 줄리핀다는 어머니를 줄라 솜을 넣어 인형을 만들고, 그 인형에 옷을 만들어 입히고, 인형이 덮을 이불과 요를 만들고..... 그것들이 그 안에 있었다. 처음으로 아버지와의 가 보았던 대천 바닷가에서 주은 조개껍질로 만든 목걸이도 있었고, 내가 처음으로 한글을 익혀 쓴 삐뚤빼뚤한 글씨의 편지도, 내가 제일 아끼던 왕구슬도 있었다. 나의 어린시절이 몽땅 그 안에 들어 있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보고픔으로 편지와 눈물이 범벅이 된 채로 울던 나는 나도 딸을 낳으면 이런 상자를 만들어주



■ 살며 생각하며 ■

상자 속에 가득한 행복

원용숙(집사, 아멘찬양대원)

리라고 결심했다. 몇 년 뒤 나는 딸을 낳았고 그때의 결심처럼 구두상자를 개조해 튼튼하고 예쁜 또 하나의 소중한 상자를 만들었다. 아이가 자라면서 그 상자 안에 차고 넘칠 정도로 많은 추억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아이가 처음으로 그린 엄마, 아빠 얼굴, 종이접기, 캠프장에서 쓴 편지, 유치원에서 만든 형형색색의 공작품들..... 언제 꺼내보아도 싫지 않은 것들이었다.

모처럼 한가한 시간에 상자를 열어 보았다. 언제나처럼 그 안에는 사랑과 행복이 가득했다. 아이가 보낸 편지를 꺼내 읽어본다. 아이의 편지 대부분은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건강하세요"

로 글을 끝을 맺고 있었다. 무심히 편지를 읽어 나가던 나는 언제부터인지 편지의 끝인사가 바뀐 것을 알았다. "엄마, 아빠 교회 잘 나가세요" "엄마 아빠 예수님 잘 믿으세요" 가슴에 찡그려진 진동이 울린다. 주일 아침마다 주일학교에 가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면서 갖길 걱정만 했었는데 아이는 어느새 자라서 나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교회 잘 나가세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하나님은 아이를 통해서 나를 깨워주신 것이다. 주일마다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가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예수 믿는 신자면서 내 자신은 얼마나 부끄러운 적이 많았는지.....하나님은 그때마다 알

마나 안타까우셨을까?

이제 아이는 엄마, 아빠의 얼굴을 그리지도 종이접기도 하지 않는다. 추억의 상자에 넣을 추억거리를 만들기보다는 학원 가기에 바쁘고 친구들과 어울리기에 바쁘다. 하지만 지난 크리스마스 카드에도 "예수님 잘 믿으세요"란 인사말은 잊지 않았다. 나는 언제까지고 아이한테서 "예수님 잘 믿으세요"란 인사말을 듣고 싶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난 나의 소중한 상자들을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어머니의 따스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며 나의 믿음생활을 반성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졌던 성경, 찬송을 소중한 상자에 넣기로 했다. 낡고 너덜거리며 낙서 자국에 더러는 찢겨져 나간 부분이 있지만 영아부에서부터 유치부, 초등부를 함께 보낸 것이니 아이에게는 뜻있는 물건이 될 것 같다. 훗날 아이가 자라 창고 안에 면지를 쓰고 있는 상자를 보면서 "예수님 잘 믿으세요"란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자못 기대된다.

토·막·소·식

◆ 교회는 3부예배시 영어통역을 담당할 사람으로 박노철 전도사를 청빙하기로 했다. 박 전도사는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원(필라델피아 소재)을 졸업하고 토론토한인교회 교육전도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충신신학대학원에서 선교학 석사 과정 중에 있다.

◆ 유아부는 겨울수련회를 위한 교사준비 기도회를 2월 16일(목) 19:00에 교육관 212호 교사실에서 갖는다. 겨울수련회는 2월 21일(화) ~ 22일(수)까지 교육관 212호에서 모이며 또한 학부모교육도 함께 한다.

◆ 초등6부는 2부 예배로 드리며 2부 예

장년2부(대상 50~59)는매주일 12시 30분, 교육관 314호실에서 윤영탁 목사의 지도 아래 읊기서 강해를 한다.

읍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성경이 중언하고 있으며 이방인인 읊을 하나님은 '나의 종'이라고 거듭 부르셨다.

그런데 왜 이렇게 경건한 읊이 유래없는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까? 읊으로 하여금 고난당하도록 허용하신 하나님은 과연 의로우신가? 읊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며 우리는 읊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읍기를 통해서 우리의 고난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를, 구약을 전공하고 현재 합동신학교의 교장으로, 구약학교수로 재직중이며 우리 교회 협동목사이신 윤영탁 목사의 읊기 강해를 통해 우리 실생활에서 답답한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 것이다.

배는 11:30부터 시작되고 교육관 502호에서 모인다. 또한 2월 1일부터 28일까지 대심방 기간으로 담임선생님과 학생 모두 기도로 준비하기를 바라고 있다.

◆ 중등3부는 영어성경공부 소그룹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성명회 선생님이 담당하며 시간은 1시, 장소는 교육관 512호.

◆ 대학부는 충헌기도원에서 통독수련회를 갖는다. 기간은 2월 15일 ~ 2월 17일까지이며 또한 2월 15일 ~ 16일에는 남양만 두레마을에서 다시 입시를 준비할 1,2학년 형제, 자매들을 위한 풀무불수련회로 모인다.

◆ 청년2부는 G.B.S와 찬양, 전도, 편집의 소그룹에서 활동할 형제자매를 찾고 있다.

◆ 새가정부는 다음 주일(19일) 찬송가 부르기대회를 개최한다.

◆ 새가족양육부는 오늘 처별찬송가 부르기 대회를 갖는다. 지정곡 340, 460, 502장 중 1곡을 선정하며 자유곡은 1절만 부른다.

◆ 장년3부는 95년도 제1차 부흥기간을 2월 13일 ~ 3월 19일로 정하고 이를 위하여 전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기도하고 생각을 모으며 애쓰고 있다.

1995년도 제1차 에바다부 수화교실 개강

에바다부에서는 금년도 제1차 수화교실을 개강한다. 참가를 희망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에바다부 교사회실에 비치된 소정양식 의거 신청하시면 됩니다.

- 기간 12주 (3월 12일 ~ 5월 28일)
- 개설강좌 : 초급 · 중급 · 고급
- 강의시간 : 평일반 / 화, 목
저녁 7:30~9:00
주말반 / 오후 3:00~4:30



금주에 기도할 제목

1.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지켜주소서.
· 김창인 목사님 : 2월 17일(금) 칼빈신학교 졸업예배 설교
· 신성중 목사님 : 2월 6일(월)~17일(금) 선교지 순방(이집트 · 이스라엘 · 독일 · 터키)
2. 충헌의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예배시작 10분전에 도착하여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 드림으로 은혜 충만하게 하소서.
3. 하나님 뜻대로 맡겨진 직분에 겸손히 충성하면서 각 구역과 부서별 공동체가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청지기훈련을 통해서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은혜를 받게 하소서.
4. 하나님이 축복하시라 공의와 사랑이 조화된 선진국으로서 선교하는 통일한국이 되게 하시고, 김영삼 장로님과 손명순 권사님에게 믿음과 지혜의 충만함을 주시며 전국적인 가뭄을 해결시켜 주소서.
5. 제2교육광 공사와 길림성기독교신학원의 설립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진행되게 하시며, 환자들의 영육을 소성케 하시고, 입시생들을 축복하소서.
6.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족의 건강을 축복하시고, 당회장 목사님의 선교지 순방을 축복하소서.

1995년도 상반기 찬양대원 모집

찬양위원회에서는 금년도 상반기 각 찬양대별 대원을 모집하고 있다.

모집자격은 ① 음악적인 자질이 있는 성도, ② 음악을 전공한 성도, ③ 배우려는 태도와 주님께 헌신하려는 자세를 가진 성도, ④ 본 교회에 등록된 세례교인으로 교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마친 성도는 준비된 소정양식에 기록하여 제출하면 된다.

또한 영어예배부의 독창자도 모집하고 있다. 각 찬양대의 예배찬양시간과 연습시간을 살펴보고 형편에 맞추어 지원하기를 바라고 있다.

· 독창자(Solist)모집

- 1) 영어예배 찬양대
- 2) 성악 전공자

· 서류제출 장소

- 1) 찬양위원회실(본당 106호/ Tel 552-8200 교 205)
- 2) 사무국 접수창구(총무과)

교회직원 모집

충헌교회 사무국에서는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헌신할 신규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다 음 -

1. 직종
가. 경비직(남) : 2명, 심신이 건강한 자
나. 사무직(남) : 1명, 1종 운전면허 소지자
2. 제출서류
가. 세례증명서 1통
나. 주민등록등본 1통
다. 이력서 1통(사진첨부)
3. 기한
1995년 2월 25일 한
4. 제출처
사무국 총무과 552-8200(402)
김차철 집사
충헌교회 사무국

물맷돌

그리스도인이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모른다. 내 힘으로, 주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을 자꾸 자랑하고 싶어한다. 신앙의 가장 큰 싸움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고 싶은 마음과의 투쟁이다. 겸손해진다는 것은 그렇게 어렵다. 신앙이란 겸손해지는 것이다. 겸손해진다는 것은 주를 의지하는 것이다. 누가 잘한다고 칭찬하면 그저 조용히 웃으면 된다. '어떻게 하더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겸손이지 '아휴, 은혜조 뭐. 기도 밖에 안했어요'라며 자기 신앙을 자랑한다면 이런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전화로 신성중 목사의 설교를, 교회안내도 함께

'이 시대의 좋은 소리'에서는 전화로 메시지 및 교회안내

700-4403

개하고 싶을 때 또 전도대상자에게 메시지를 들려주

등을 하는 일을 하고 있다. 우리 교회의 당회장 신성중 목사의 설교도 '이 시대의 좋은 소리'의 전화이용으로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다. 이 전화 서비스는 메시지 뿐만 아니라 말씀묵상과 성시낭송, 신앙간증과 신앙예화, 교회소식 등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 교회를 다른 사람에게 소

고 싶을 때, 생활하면서 말씀을 듣고 싶을 때 활용하면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전화로 들을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700-4403 충헌의 소리
- 700-4633 간증
- 700-4733 청소년을 위한 사랑의 전화
- 700-4833 행복한 여성의 전화

부목사 초빙 안내

충헌교회는 천국일꾼을 키우기 위해서 청소년 지도와 교회 교육을 연구하실 부목사님을 초빙코자 합니다. 이 방면에 소명을 받으시고 열정적으로 사역하실 뜻을 가지신 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역부서 : 1) 청소년(고등부 · 대학부 · 청년부) 지도 목사
2) 교회 교육연구소 지도 목사
2. 자 격
1) 총신대 신대원 졸업자
2) 해당분야에 소명감과 열정이 있으신 분
3) 해당분야를 전공하시고 사역의 경험이 있으신 분
3. 제출서류
1) 자필이력서(사진첨부) 1부
2) 주민등록 등본 1부
3) 자기소개서/ 신앙간증문/ 해당분야에 대한 자기의 비전 중(택일)
4) 당회장 혹은 기타인의 추천서 1부
5) 총신대 신대원 졸업증명서 1부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제출서류 중 4), 5), 6)은 면접 이후 제출해도 가함
4. 제출기간 : 1995년 2월 24일까지
5. 면 접 : 1995년 3월 3일 (개인별로 면접시간 사전 통보)
6. 제 출 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헌교회 인사위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문의 552-8200, F 563-3932)
1995년 2월 2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헌교회 인사위원회